

# 정읍시,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사업 '탄력'

###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형사업 공모 선정 국비 20억 확보 2022년까지 VR 체험장·수변 둘레길·워터스크린 등 설치

정읍시가 추진하는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국가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따라 정읍시는 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7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으로는 VR 체험장과 수변 둘레길 조성, 워터스크린 설치 등이 추진된다.

VR 체험장은 내장산과 용산호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번지점프와 수중게임, 스포츠 등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또 쏟아지는 물줄기를 배경으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워터스크린도 설치한다. 용산호 수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편의시설과 경관조명 등을 설치한다. 시는 용산호 수변생태공원의 유지관리와 운영은 주민 주도하에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내장산과 용산호 주변의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구축해 정읍시의 핵심 명품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다"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신안 비금농협, 드론 이용 농약 방제사업 호응

### 88ha 농약살포 마쳐... 농가 일손 덜고 비용절감 효과

신안 비금농협은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농가의 일손을 돕고 소득증대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 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9일 비금농협에 따르면 최승영 조합장은 올해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내건 공약 중 하나인 드론 방제 사업을 최근 지역의 농가에서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드론 방제를 신청한 15농가를 대상으로 일제히 살포한데 이어 102농가, 88ha에 걸쳐 농약살포를 마쳤다. 비금농협은 지역 농가의 실정을 감안해 드론 농약 살포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수익성 사업이 아닌 환원 사업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sslee@

이에따라 노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비용면에서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비금농협 드론 농약 방제 사업은 농협회원종합지원부 주관 '도농상생 스킨십 한마당' 대회의 도시, 농촌, 농촌협간 농약방제용 드론지원사업과 관련, 서울경기양돈농협에서 지원받았다. 최승영 비금농협 조합장은 "겨울철 농가 소득 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농협중앙회 자금 40억원을 유치해 씨감자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천일염과 섬초의 유통 개선 및 판매처 확대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sslee@

## 전주시, 드론축구 부품 수출 200만달러 돌파

### 관련 산업 급성장... 지역 중기 용품 해외 진출 기여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보급한 드론축구 관련 부품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부품을 생산하는 전주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 기준 전주시 드론축구 관련 부품의 수출량이 200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7일 '2019 드론산업 국제박람회'가 진행 중인 전주월드컵경기장 상설체험장에서 수출 축하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양원 전주부시장과 양군의 대한드론축구협회 공동대표(캠틱종합기술원장)는 드론축구 부품 수출 200만 달러 돌파를 기념해 올해를 '드론축구 세계화 원년'으로 삼을 것을 선포했다. 시와 캠틱종합기술원은 2016년 문화체

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첨단 드론기술과 탄소, ICT 기술을 융복합해 신개념 드론 레저스포츠인 드론축구를 개발했다. 또 2025년 드론 축구 월드컵 전주 개최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2017년 지비파(주)헬스과 협약을 체결하고 드론축구 보급에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동남아시아(말레이시아)와 유럽(프랑스), 아시아(중국, 홍콩)에 드론축구 용품을 수출하는 등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 또 올해 일본에 성인 및 청소년 드론축구부를 수출하면서 유소년 드론축구부를 중심으로 19억5000만원의 수출을 달성해 드론축구가 개발된 지 3년 만에 해외수출



만 총 20억원(약 2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드론 축구 관련 부품이 일본에서 동남아시아, 유럽, 아

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로 뻗어 나가는 드론축구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시원한 물줄기도 맞고 공연도 보고

### 순창 일품공원 분수대 인근 면 단위 군민들까지 발걸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순창군이 운영하는 일품공원을 찾는 군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일품공원 내 분수대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동 중이다. 분수대 운영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이 공원은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인근 지역부터 면 단위 군민들까지 찾고 있는 곳이다. 군은 분수대를 이용하는 연령이 영유아나 초등학교 등이 대다수인 것을 고려해 수질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 수소이온농도와 탁도, 대장균, 유리 잔류염소 등 수염장 수질 관리기준 수준에 적합하도록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관에 의뢰해 관리하는 운영방침을 세웠다. 또 매주 월요일마다 분수대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전문소독업체를 이용한 정소도 진행해 군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수대 바로 옆 소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문화공연도 군민들을 일품공원으로 이끌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매월 격주로 열리는 문화공연은 관내 50여개 동호회가 돌아가며 합창, 댄스부터 라인댄스, 플롯 공연, 우쿨렐레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일품공원을 찾는 군민들에게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공연을 예고한 가운데 9월, 10월은 월 1회씩 공연이 이뤄진다. 순창군 관계자는 "분수대를 이용하는 대다수가 영유아로 안전 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신경 쓰고 있다"면서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 남원시, 임신부 의료비 지원 당뇨 등 19종 질환으로 확대

남원시가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기존 11종 질환에서 19종 질환으로 확대 지원 한다. 15일부터 확대되는 지원대상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 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부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장애,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신부이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신청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원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63-620-7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영광 태청산 안골계곡 숨겨진 비경 10년 만에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군, 12일부터 한달간 한시 개방  
높이 593m로 영광지역 내 최고봉인 대마면 태청산 자락의 숨겨진 비경인 안골계곡이 10년 만에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영광군은 최근 정비를 마친 태청산 안골계곡을 12일부터 8월15일까지 한 달간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안골계곡은 지난 10년간 마을식수 활용과 수자원 확보공사 등을 이유로 출입이 통제됐었다. 영광군이 지난해 12월 주변 공사를 마치고 최근 계곡형 물놀이터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담수 시설 등을 확보하고 화장실과 주차장을 비롯해 쉼터 등을 설치했다. 특이한 화강암 형태로 이뤄진 태청산 안골 계곡은 지리산 계곡과 견주어도 손

색이 없을 정도로 숲이 울창하고 물이 맑다. 특히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이 솟은 울창한 편백숲 사이로 어우러진 등산로와 계곡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국화, 핑크플리, 역새 등 야생초도 함께 감상할 수 있고 아름다운 고목 사이 길을 따라 팔순 어른신도 산책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경사도 완만하다. 개방 첫 해인 올해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취사와 세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식사를 위해서는 도시락 등의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주말에는 예약제 방식으로 쉼터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대마면 정년회(010-9155-1008)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 풍암동,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신창동, 근린상가 매매/임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매매 - 8억 8천만원
- 임대 - 보1억원에 월400만원

문의. 010-6834-7400